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

영화 ‘그린 북’ 작품상 영예

인종 차별에 대한 경종 울려
남우조연상 · 각본상까지 차지

2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은 영화 ‘그린 북’의 피터 패럴리 감독이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영화 ‘그린 북’의 피터 패럴리(63) 감독이 제91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받았다. 수상이 유력하게 점쳐진 알폰소 쿠아론(58) 감독의 ‘로마’를 제치며 이변을 일으켰다.

‘그린 북’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로마’를 비롯해 ‘스타 이즈 본’(감독 브래들리 쿠퍼),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감독 요르고스 란티모스), ‘블랙 팬서’(감독 라이언 쿠글러), ‘블랙 클랜스맨’(감독 스파이크 리), ‘보헤미안 랩소디’(감독 브라이언 싱어), ‘바이스’(감독 아담 맥케이)를 꺾고 작품상을 거머쥐었다. 남우조연상 · 각본상을 수상하며 3관왕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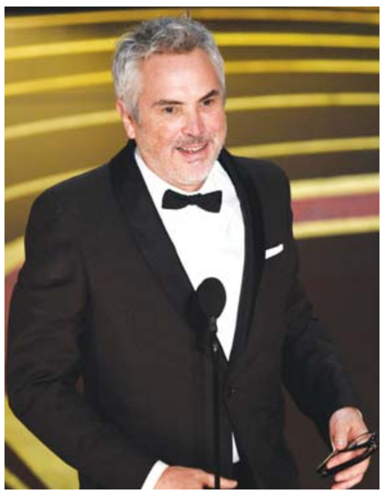
‘그린 북’은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제작한 로드 무비다. 흑인 천재 피아니스트 ‘돈 셜리’(마허샬라 알리)와 이탈리아계 이민자 출신 다혈질 운전사 ‘토니 발레롱가’(비고 모텐슨)가 미국 남부로 콘서트 투어를 다니며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다.

실화 소재 영화로, 인종 차별에 대한 경종을 울려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 전미비평가협회(NBR)가 올해 최고의 영화로 선정했으며, 금년 제76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뮤지컬코미디 부문 작품상을 받은 바 있다.

패럴리 감독은 “사랑에 관한 영화”라며 “서로 다르지만 사랑하라는 것, 우리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담았다. 서로를 존중하며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린 북’은 남우조연상, 각본상까지 가져갔다. 남우조연상을 받은 마허샬라 알리(45)는 “셜리 박사님 감사하다”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고, 그의 삶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함께 연기한 비고 모텐슨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인사했다.

/뉴시스



쿠아론作 ‘로마’, 감독상 등 3관왕 차지

“여성 노동자 권리 보장받아야”

영화 ‘로마’의 알폰소 쿠아론(58 · 멕시코) 감독이 제91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받았다.

쿠아론 감독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애덤 매케이(바이스), 요르고스 란티모스(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파벨 파블리코브스키(콜드 워), 스파이크 리(블랙 클랜스맨)를 제치고 감독상을 품에 안았다.

넷플릭스가 제작한 ‘로마’는 스페인어로 만든 흑백영화다. 쿠아론 감독의 어린시절 기억을 바탕으로 했다. 1970년대 초반 멕시코시티의 로마 지역을 배경으로 가정부 ‘클레오’(얄리차 아파리시오)의 애환을 그렸다. 분열된 중산층 가족의 중심에 있는 클레오는 정치적 격랑 속에서 가정 불화와 사회적 억압을 생생히 재현한다.

‘로마’는 외국어영화상 · 촬영상 · 감독상 등 3개 부문에서 트로피를 받았다. 쿠아론 감독은 “여기는 올 때마다 좋다”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클레오’를 연기한 아파리시오(26)에게 “영화를 잘 이끌어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는 “1700만 여성 노동자들이 있고, 이 중 1명은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이들을 봐야 하고, 책임을 갖고 있다. 지금 이런 책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올 아카데미상 주 · 조연 배우는 누구?

남우주연상 - ‘보헤미안 랩소디’ 라미 말렉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감독 브라이언 싱어)의 이집트계 할리우드 배우 라미 말렉(38)이 제91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말렉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이 시상식에서 크리스천 베일(바이스), 브래들리 쿠퍼(스타 이즈 본), 비고 모텐슨(그린 북), 윌렘 대포(앳 이터니티스 게이트)를 제치고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1970~80년대를 풍미한 영국의 록밴드 ‘퀸’의 무대와 음악을 담은 작품이다. 말렉은 퀸의 보컬이자 전설로 불리는 ‘프레디 머큐리’(1946~1991)를 연기했다. 머큐리의 외모와 말투, 특유의 제스처까지 완벽하게 재현해 호평을 받았다.

여우주연상 - ‘더 페이버릿’ 올리비아 콜먼

영화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에 출연한 영국 배우 올리비아 콜먼(45)이 제91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감독 요르고스 란티모스)는 18세기 절대 권력을 지닌 영국의 여왕 ‘앤’의 총애를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두 여자의 이야기다. 여왕의 오랜 친구로 권력 실세인 ‘세라 제닝스’(레이철 와이즈)와 신분 상승을 노리는 하녀 ‘아비게일 힐’(에마 스톤)이 신경전을 벌인다.

여기서 콜먼은 신경질적이고 무력한 ‘앤 여왕’을 연기했다. 여자들의 질투와 욕망, 감정 변화를 섬세한 연기로 표현해내 호평받았다. 올해 제72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남우조연상 - ‘그린 북’ 마허샬라 알리

영화 ‘그린 북’(감독 피터 패럴리)의 마허샬라 알리(45)가 ‘제91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알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이 시상식에서 아담 드라이버(‘블랙 클랜스맨’), 샘 엘리엇(‘스타 이즈 본’) 등을 제치고 남우조연상을 거머쥐었다.

‘그린 북’(감독 피터 패럴리)은 1962년 천재 피아니스트 ‘돈 셜리’와 그의 새로운 운전사이자 매니저 ‘토니’가 미국 남부로 콘서트 투어를 다니며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다.

알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피아니스트 ‘돈 셜리’를 연기했다. 높은 교양 수준의 삶을 누리며 사람들의 인종 편견에 맞서는 인물이다.

여우조연상 - ‘이프 빌 스트리트…’ 리지아나 킹

영화 ‘이프 빌 스트리트 쿠드 토크’(감독 배리 젠킨스)의 리자이나 킹(48)이 ‘제91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이 시상식에서 에이미 애덤스(‘바이스’), 마리나 데 타비라(‘로마’), 에마 스톤(‘더 페이버릿’), 레이철 와이즈(‘더 페이버릿’)를 제치고 여우조연상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이프 빌 스트리트 쿠드 토크’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돌보며 인종차별에 맞서 남편의 결백을 입증하려는 여성 ‘티시’의 이야기다. 킹은 티시의 엄마 ‘샤론’을 연기했다. 생애 첫 오스카를 품에 안은 킹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뉴시스